

인천아트플랫폼 2024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공모 - 최종 심의 결과 공고

인천아트플랫폼 2024년도 <인천 청년 예술가 스튜디오 지원 사업>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인천아트플랫폼 2024년도 <인천 청년 예술가 스튜디오 지원 사업>의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2.

☐ 최종 선정자 명단(부문별)

1. 인천아트플랫폼 2024년 <인천 청년 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가. 시각예술부문(7개월/2024년 8월 ~ 2025년 3월)

- 예술가			
순번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1	202406010024	박OO	010-****-7579
2	202406020033	김OO	010-****-0769
3	202406030045	김OO	010-****-1733
4	202406030047	송OO	010-****-4584
5	202406030048	정OO	010-****-5340
6	202406030053	양OO	010-****-4253
7	202406030071	소OO	010-****-9087
8	202406030085	고OO	010-****-3620

나. 공연예술 부문(7개월/2024년 8월 ~ 2025년 3월)

순번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1	202405210007	마OO	010-****-7766

다. 다원예술 부문(7개월/2024년 8월 ~ 2025년 3월)

순번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1	202406030066	안OO	010-****-3260

☐ 예비 선정자 명단

1. 인천아트플랫폼 2024년 <인천 청년 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가. 시각예술부문

구분	접수번호	성명
차순1	202406030041	안OO
차순2	202406030059	원OO
차순3	202405220008	이OO
차순4	202405310018	이OO
차순5	202406020037	박OO

□ 입주 절차 및 오리엔테이션

- 입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합니다.
- 입실기간 : 2024년 8월 5일(월) ~ 8월 9일(금) 중
- 입주 오리엔테이션 : 2024년 8월 2일(금), 14:00,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다목적실
 -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선정된 예술가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계약서 작성, 입주 관련 안내, 스튜디오 배정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업실 배정은 오리엔테이션 전에 이메일(7/23/화 ~ 7/26/금) 안내에 따라 희망 신청 1순위를 받으며, 중복 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안내합니다.
 - 기타사항 : 오리엔테이션 진행 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요
 - ※ 입주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본인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합격자 별도 안내 예정)
 - *그룹의 경우, 대표(신청자)는 모두 지참, 팀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만 제출)

□ 별첨

인천아트플랫폼 2024년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공모 심의평

○ [1차]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 전 부문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은 인천 지역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여 인천 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레지던시 공모와 달리 청년을 중심으로 입주 예술가를 선정함으로써, 명칭 변경과 함께 그 목표와 신청요건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공모에는 회화, 평면,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서부터 실험성이 강한 미디어아트, 다원예술 및 융복합 작업, 연극, 음악에 이르기까지 인천이라는 장소를 필두로 다양한 매체의 지원자가 참여하였습니다. 공모 분야를 4개 부문으로 확대하였으나, 시각예술부문의 지원이 여전히 강세였습니다.

1차 서류 심의에서는 다섯 명의 심의위원이 토론을 거친 후, 최고점 순서로 20인의 예술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입주 신청 자격을 ‘인천 청년’으로 국한한 까닭에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지원자들이 청년 작가인 까닭에, 지원자들의 활동 계획이 매우 신선하고 의욕적이었습니다. 이따금 설익고 서투른 활동 계획도 눈에 띄었지만, 지원자들이 청년 작가임을 감안하여 작품의 예술성 못지않게 창작활동의 발전 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심의에 임했습니다. 특히, 특정 유행을 좇지 않고 지역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창작 세계를 굳건히 펼쳐나가고 있는 창작자의 작업과 실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뛰어난 작품 활동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간 중 구체적인 창작 계획과 예술창작공간 입주 필요성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서류 심의에서 선정이 되지 못한 이들이 있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둘째, 인천 연고 작가들답게 입주 기간,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연결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려는 작업 계획들이 많아 흥미로웠습니다. 입주 작가들이 예술창작공간이 속한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다면, 입주 기간 적은 시행착오로 지역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조사에 기반을 둔 탁월한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천 연고 작가들을 위한 스튜디오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지역 리서치에 대한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심층적인 지원자들도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향성이 약한 경우 또한 다수였습니다. 지역, 타 장르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억지로 맞추려는 듯한 기획안은 입주 기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역’에 한계를 두는 단기적 작가 공모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작가라면, 자신의 작업을 어떻게 지역과 매개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차원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에게 예술의 다양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획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면적인 관점으로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들이 많이 보인다는 건, 청년 예술가들에게 공적인 지원을 통한 다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 절실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1차 심의과정에서는 인천아트플랫폼 예술창작공간 공모의 여러 가지 변화의 정황을 체감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1차 심의위원회는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이 기존 인천아

트플랫폼이 유지해온 방향성과 활성화의 측면에서 ‘인천’을 구체화하였으나, 동시에 배타성과 고립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염려했습니다. 또한, 신청요건을 ‘인천 연고의 청년예술가’로 제한한 만큼 지원자 수도 예년과 다르게 크게 줄어들었기에, ‘인천 청년예술가’를 타킷으로 하는 사업이 예술창작공간의 전반적인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전이 과정에 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공간이 그 공간만의 특정한 장소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삶을 영위하며 쌓여진 기억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을 거쳐간 작가들의 흔적과 중첩된 기록들은 인천을 하나의 특정한 색채와 성격을 지닌 장소로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창작공간은 단순히 창작공간일 뿐만 아니라 입주작가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작가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인천 연고로 국한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2024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예술가들이 인천을 감각하고 표현하는 청년들의 생각과 행위가 또 하나의 인천의 장소성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전 레지던시의 역사를 덧입고 활동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작가들이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작업관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인천아트플랫폼이 청년 예술가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공모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창작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김미정(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김흥기(미술비평가)

이소영(대구대학교 교수, 미디어 아티스트)

오세원(씨알컬렉티브 디렉터)

정재경(작가, 전시공간 쉬(shhh) 디렉터)

*심의위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 [최종]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 전 부문

인천아트플랫폼 2024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 예술가 공모 2차 인터뷰 심의는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차 인터뷰 전 부문 심의에는 20명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입주 연구자 1명이 심의를 포기하였습니다. 시각예술부문의 지원이 단연 우세하였고, 공연예술부문, 다원예술부문, 예술이론부문에서는 각 1명의 지원자가 인터뷰 심의에 선정되었습니다. 시각예술부문 지원자 중에는 다원예술부문에 해당하는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공모 분야를 세분화하여 선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각예술부문에서는 한국화 장르의 작가들의 지원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한국화를 끈기있게 지속하는 작가군이 점차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에 지원한 작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 작가들이 표현하는 흥미진진한 작품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인천에 대한 의미론적 탐색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작품의 내재된 깊이감과 진정성은 기본적인 심의의 기준이었으며, 모호하고 불확실한 개념의 확장성을 보이는 작업보다는 입주 기간 내에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작업의 방향성과 본인이 표현해내는 시각언어 사이의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조형 언어를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개인에서 시작되어 문화인류학적 접근으로 해석 가능한 서사들을 발굴하고 그것이 가진 원형적 힘을 관객과 공유하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작가로서 아직은 과정 중인 설익은 기획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술가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진지한 시선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입주 기간 좀 더 무르익어 워크숍과 퍼블릭 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의 창작 스튜디오를 통해 작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개인의 작업으로 머물러 있던 예술세계를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인천 청년예술가’라는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10인의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작가 중 인천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작가의 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인천과의 지역 연계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너무 강조하여 우수한 작가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예술창작공간의 입주 기간인 7개월은 작가들이 충분히 창작 역량을 펼치기에 다소 짧습니다.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이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며, 독창적인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확신과 자긍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은 호기심을 일으키고 매력을 발산하는 데 반해, 프레젠테이션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 작업에 대한 언어적 번역과 글쓰기 훈련도, 작업만큼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랜 기간의 의심, 성찰, 협상이 필요한 작업의 특성과 단속적이고 쟁점-특정적 소재 발굴 사이에서 모쪼록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지 않은 분들도 좋은 테크닉, 기발한 아이디어, 꾸준한 반복과 수행을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혜경(홍익대학교 교수, 前 부산시립미술관 관장)

양효실(미학자)

이채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장 진(대구대학교 교수, 작가)

정 현(인하대학교 교수, 미술평론가)

*심의위원명은 가나다순입니다.